

특별회의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이행기 정의의 실현에서의 사죄의 문제:
가상적 사죄 조형물과 이에 대한 혼내주기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정근식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무릎 꿇은 전두환’ 상을 보며
2. 사죄이론과 5.18에서의 사죄의 문제
3. ‘가상적 사죄’상의 계보
4. 현실적인 사죄행동의 효과
5. 맺음말

Key Words

처벌(punishment), 사면(amnesty), 사죄(apology), 용서(forgiveness), 상상적 사죄(imaginary apology), 조롱 퍼포먼스(mockery performance), 치유성 혼내기(remedial derision), 증강된 모형(augmented simulacrum)

1. 문제의 제기 : ‘무릎 꿇은 전두환’상 (‘captured Chun sculpture in a kneeling posture’을 보며

2019년 12월 12일,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형물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등장했다.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40주년을 상기하면서 5·18 관련단체들이 세운 것이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죄를 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며 “1979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인의 사명과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탐욕과 권력 쟁취를 위해 군사 반란을 자행했고 반란의 수괴로서 악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전시가 일반적인 공공 예술작품 전시와는 달리 지나가는 행인들이 이를 지나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머리카락이나 얼굴을 때리거나 혼내주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전시되었다는 것이다. 이 상이 전시된 후 약 10여일이 지나자 머리에 균열이 생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런 퍼포먼스에 참여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 전두환이 광주 법정에 출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조형물은 2020년 4월말에 광주의 법원 앞에 전시되었다가 다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으로 이동 전시되었다. 5.18 40주년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에서 보다 더 그를 혼내주는 의례적 퍼포먼스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시민들은 이 플라스틱 망치로 그의 머리를 치면서 ‘시원하다’거나 ‘사죄를 하라’라는 투의 말을 내뱉었다.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어려움은 피해자집단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은데 가해자가 끝까지 사죄를 하지 않고 버티거나 사죄를 해야 할 책임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라져버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선취하여 마치 가해자나 책임자가 사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사실주의적으로 형상화하여 전시하면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통하여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죄를 촉구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망을 물질적으로 형상화하여 전시하는 현상, 나아가 이런 조형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의례적이지만 제재를 가하고 그림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개념화할 것인가?

이 글은 ‘무릎 꿇은 전두환’ 상의 구성과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5.18에서의 사죄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조형물이 탄생하게 된 5.18 부인에 대한 시민적 분노의 맥락과 함께, 무릎 꿇고 사죄하는 조형물의 계보를 언급할 것이다. 선행 사례로 거창 추모공원의 ‘참회’ 상이 있고, 후행 사례로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원한 속죄’ 상의 사례가 있다. 또 5.18 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사례들과 상상적 사죄를 비교하면서, 왜 이행기 정의의 실현에서 ‘사죄’의 문제가 중요한지를 논의할 것이다.

2. 사죄론과 5.18에서의 사죄의 문제

1) 사죄 이론

니콜라스 타부치스의 사죄와 화해의 사회학은 1991년 출판되자마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는 고프만의 영감에 기초하면서도 그와 달리 사죄의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잡하고 민감한 감정과 그것의 사회적 표현의 문제로 다루었다. 그는 사죄를 도덕적 공동체의 회복 또는 소외의 문제로 접근했다. 그것은 성원의식(membership), 이탈(deviance), 동조(conformity) 등의 개념과 연관된다. 그는 개인이 신격화된(deified) 사회, 결속(bond)이나 감정(emotion)이 부정되는 사회에서는 사죄가 일어나기 어렵고, 공동체나 연대(solidarity)가 살아 있는 곳에서는 사죄가 일어나기 쉽다고 보았다.¹⁾

세계의 이행기 정의의 프로젝트에서 진실 고백과 사면이 부각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였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TRC)는 이행기 정의의 역사에서 여러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는 과거의 인권침해사실을 조사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희생자들의 보상 및 명예회복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그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침해 위원회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e), 보상 및 명예회복 위원회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 Committee), 사면 위원회 (Amnesty Committee)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사죄와 용서, 그리고 화해로 이어지는 회복적 정의의 규범적 과정은 공동체의 지속적 재생산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는 일종의 공동체로 상정되며,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성원들의 상호 인정과 연대이다. 국가 폭력을 포함하여 불법적 행위가 공동체적 연대를 훼손한 경우, 사회는 폭력의 가해자, 또는 불법적 행위의 책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며,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용서를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2) 5.18에서의 사죄의 문제

한국에서 이행기 정의의 원칙은 1994년에 정립되었다. 당시 광주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광주 문제 해결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 등 5개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거쳐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법이 제정된 1995년에 한국에서도 광주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1996년 1월, 검찰은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들을 5.18 사건에서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은 한국사회 뿐 아니라 세

1) 이준서(2016)는 이를 수치심 문화와 자책감 문화의 차이로 설명했다.

계적으로 유명한 이행기 정의의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97년 대통령 선거 직후에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자와 협의한 후 이들을 사면하였다. 그러나 이 사면은 당시의 국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2005년경부터 새롭게 등장한 뉴 라이트 그룹과 이들에 의한 5.18 폄훼(denigrating), 그리고 이후에 지속인 극우파 집단의 5.18 왜곡(distortion)은 5.18의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201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2017)을 출판하여 5.18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 즉 5.18 진실의 부인(denial of the truth)과 무책임(inresponsibility)을 되풀이하자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5.18에서의 사죄의 문제는 시민들에게 가해진 계엄군의 무차별적 폭력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분노에서 발생하였다. 사죄요구는 용서를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5.18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의 최종 책임자의 진술한 사죄가 있을 경우 용서를 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역사와 화해하고 싶은 소망을 간직해왔지만, 이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Gwangju citizen want him to bend his knees and hope to present forgiveness. However their hope has not been come true.

이런 상황에서 2019년 12월 12일 ‘무릎 꿇은 전두환’이 제작되어 서울의 도심에서 전시되었고, 2020년 4월 25일에는 광주로 옮겨져 전시된 것이다. 이 조형물은 “군사반란을 암시하는 군복을 입고 있고, 소장(보안사령관) 계급장을 달고 있다. 가슴에는 전두환 명찰과 함께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을 당시 수인번호(죄수번호)를 달고 있다. 동상은 무릎을 꿇고, 포승줄에 묶인 채 쇠창살에 갇힌 모습이다. 쇠창살은 열 수 있게 돼 있다. 제작자는 “시민의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라는 의미에서 쇠창살 전면을 개방했다. 누구나 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릴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형물이 광화문 광장에 놓이자, 이에 대한 이름을 두고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다. ‘구속상’(detention sculpture), ‘치욕상’(humiliation sculpture) 등인데 제작자는 “사죄를 감추고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전두환을 끌어낸다는 의미”에서 ‘포획상’(capture sculpture)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3. 가상적 사죄 상의 계보

1) 거창 추모공원의 ‘무릎 꿇은 군인들’과 ‘참회’

‘무릎 꿇은 전두환’이라는 조형물 속에 있는 학살책임자들의 사죄에 대한 집단적 소망의 가상적 재현의 기원은 2004년 조성된 거창 추모공원에서 찾을 수 있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발생했던 거창 양민학살의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이 공원에는 18m의 위령탑이 있고, 오른쪽에 후손들의 정성 어린 위로에 의해 한을 풀고 승천하는 영령들과 유족들을 표현한 ‘환희’라는 상이 있으며, 왼쪽에는 무릎 꿇은 군인들이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참회’라는 상이 있다.

‘참회’는 세 명의 군인을 재현하고 있는데, 지휘관인 듯한 군인은 모자를 벗은 채 무릎을 꿇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한 채 용서를 비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며, 다른 한 명은 그의 뒤 우측 편에서 철모를 벗어 오른손에 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다른 한 명은 좌측 뒤

편에서 철모를 쓰고 총을 앞에 가지런히 세운 채 묵념하는 자세로 서 있다. 이 ‘참회’라는 작품이 실제로 일어난 군인들의 사죄를 재현했는지, 아니면 유족들이 군인들로부터 사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이처럼 표현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보기에 ‘참회’라는 ‘무릎 꿇은 군인’의 모습은 실제로 일어난 현실을 재현했다기보다는 유족들이 소망하는 군인들의 사죄를 물질적으로 재현한 것에 가깝다. 사죄는 현실이라기보다는 소망이며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2) 평화의 소녀상 앞에 무릎 꿇은 일본인 상

가상적 사죄와 이의 리얼리즘적 조형은 국내적 맥락 뿐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한국인들의 다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왜 일본정부가 이를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때때로 분노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과 1992년 1월 8일 수요집회를 시작으로 하여 개인적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되었고, 수요 집회 1,000회를 맞는 기념으로 2011년 12월 14일 소녀상이 설치되면서 이들에 대한 기억운동이 크게 확산되었다.

평화의 소녀상과 연관되어 일본의 사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 2020년 7월에 만들어졌다. 강원도 평창의 한 식물원 원장이 조각가 왕광현에 의뢰하여 ‘영원한 속죄’(A heartfelt apology·永遠の贖罪)라는 이름의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한국의 여론도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다. 가장 민감한 점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일본의 아베 총리인가 아닌가였다. 이와 함께 악화되어 있는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이런 조형물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보도되었다.

“위안부 운동의 목표는 용서와 화해다.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가 앞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성과 사죄가 더디다고, 이를 촉구하는 행동이 야유나 경멸을 담은 위협적 방식이어선 안된다.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정신적 우위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용서가 완성된다. 용서할 주체가 옹졸함, 조급함, 저열함 같은 정신적 태도의 소유자로 전락할 때, 용서는 진정한 인간성 회복이 아니라 공격적인 한풀이로 변질되고 만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식물원 원장은 이 조형물의 공개를 취소하였다.

4. 현실로서의 사죄행동의 효과

2020년 8월 19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영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였다. 그는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2020년 4월의 총선거에서의 미래통합당의 패배가 그동안의 극우파 정치인들의 5.18 부인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또 그는 자신 개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사죄 퍼포먼스는 비교적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흥미로운 것은 4년전에도 그는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이 있는데, 이 때 그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때 5.18관련 단체들은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무엇이 김종인 위원장의 사죄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을 다르게 했을까? 김종인 위원장의 현실적 사죄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상적 사죄는 매우 흥미로운 이론적 문제를 제기한다. 가상과 현실의 차이 뿐 아니라 사죄의 맥락은 사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5.18 가해 책임자의 입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사례는 또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은 2019년 8월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하여 참배하고 헌화하였다. 그의 반복되는 사죄는 사죄를 하지 않는 전두환과 대비되면서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사죄는 전두환의 사죄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기대를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다.

5. 맺음말

1990년대 광주 5.18 문제에서 정립된 이행기 정의의 원칙들은 진실을 기초로 하여, 책임, 보상, 명예회복, 기억이라는 5개 항목의 순차적 실현을 지향하지만,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5.18과 관련하여 1996년에 이루어진 책임자 처벌은 1997년의 사면 조치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나타난 5.18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5.18 진실의 왜곡은 보다 구체적인 진실 규명과 함께 책임자의 진솔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지속되는 5.18 부인의 근본적 원인은 책임자의 사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로 간주되는 전두환의 진솔한 사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무릎 꿇은 전두환’ 프로젝트가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는 조형물 만들기(상상된 소망으로서의 사죄), 조형물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 시민들의 작고 의례적인 응징 행동(공연에 참여하기), 그리고 장소를 옮겨 가면서 반복하기(조리돌리기)로 구성되었다.

‘무릎 꿇은 전두환’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나(unreal), 많은 사람들의 소망 속에 존재하며(being), 작가는 그런 소망을 물질화-시각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형물은 특정 장소에 실재한다(Da-sein). 전두환 상을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행위는 소망의 표현(presentation)이다. ‘무릎 꿇은 전두환’ 상은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제웅(a straw effigy for exorcism)이나 카리브해의 종교에서 나타나는 부두 인형(voodoo doll)과 대비된다. 제웅이나 부두 인형은 그 자체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이를 바늘로 찌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라면, 이 조형물은 사람들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모습이라는 차이가 있다. 무릎 꿇은 모습의 형상화도 중요하고 또 이 조형물에 대해 시민들이 뽕 망치로 때리는 연기적 행위도 중요하다.

우리는 이 사례에서 전통적인 도덕적 윤리적 제재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포획 상은 서울과 광주에서 이동 전시되었으며, 이를 제작한 작가는 이를 전통적인 ‘조리돌리기’로 해석했다.²⁾

전두환 조형물은 그의 군부 쿠데타 및 학살 책임을 상징하고 또 동시에 응징을 당하는 모습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증강된 복제품’(‘augmented simulacrum’)인데, 실제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pro-realism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³⁾ 이것이 전시되는 방식과 그것이 빛어내는 효과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 조형물은 가해책임자를 가상적으로나마 무릎을 꿇게 했다는

2) 조리(strainer) 돌림은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에게 조리를 씌워 마을을 돌게 함으로써 공개적인 수치심을 안겨주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전통적인 벌주기 퍼포먼스이다. They wanted that it should be dragged along the streets to expose him to public shame.

3) pro-realization means make something more real.

점에서,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제응에 대해 작은 보복 행위를 연기함으로써 치유효과를 만들어 낸다. 시민들은 이 조형물을 플라스틱 망치(뿡 망치)로 머리를 때리거나 훈계를 하는 행위들을 하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처럼 조형물을 대상으로 하여 의례적이고 작은 제재 퍼포먼스를 행함으로써 치유효과를 갖는 것을 행동적 리얼리즘(actual realism)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어떨까. 이 행동적 리얼리즘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사죄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표현할 뿐 아니라 집단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분적 치유효과(partial effect of healing)를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생겨난다. 그것은 동시에 실제로 사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런 점에서 ‘무릎 꿇은 전두환’ 조형물 자체가 일종의 분노조절장치일 수 있다.

무릎 꿇리기 조형물과 이를 둘러싼 작은 퍼포먼스들은 이행기 정의에서 사죄와 용서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임자 처벌의 원칙은 처벌 자체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회복적 정의로서의 피해자의 치유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쇄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최종적인 문제는 이런 퍼포먼스가 과연 가해 책임자의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이다. 그의 사죄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그가 속한 가족이나 그를 따르는 소집단의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다. 사죄는 한편으로는 진정성 문제를 수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탐색을 필요로 한다.